

韓國의 甕棺解釋에 對한 一小考

金 貞 培

- | | |
|-----------|------------|
| 一. 머리말 | 三. 洗骨葬의 意義 |
| 二. 從來의 見解 | 四. 餘 說 |

一. 머 리 말

考古學에서 取及하고 있는 墓制中에 甕棺만이 特異한 存在라고는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韓國에서 發見내지 發掘된 數가 몇 例에 지나지 않아 이를 資料로 使用하여 어떤 무엇을 考察해 본다는 것은 매우 어설퍼서 時間尙早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筆者가 이 問題에 다소나마 關心을 갖으려고 하는 것은 甕棺이라는 文字自體의 뜻을 떠나 종래의 見解를 한번 일별해 보는 것이 결코 無意味 하지 않으리라는 희미한 기대에서 나온 것이다.

Dolmen 과 아울러 이甕棺이 우리의 눈을 끌게 되는 것은 우선 墓制로서는 特異한 外的인 形態를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은 다만 埋葬수단이란 墳墓의 一形式으로 여겨왔고 그 以上の 해석이 別로 加해지지 못한 것은 資料의 不足 때문이라고 풀이 될 수도 있다. 이 問題에 對하여 外國學者의 單片的인 說을 보아왔던 필자는 근간 臺灣大學 凌純聲 教授의 「臺灣과 東亞 및 西南太平洋의 Dolmen 文化」라는 著書를 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凌純聲教授는 여러 學者의 說을 綜合하여 결국 Dolmen 의 原初意義를 (1) 祭壇 (Altar or temple)的 Dolmen. (2) 紀念 (Monument or Memorial)的 Dolmen (3) 墳墓 (grave)的 Dolmen 으로 나누고 있다⁽¹⁾. 물론 各 地域의 Dolmen 이 上述한 의를를 모두 갖고 있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며 臺灣의 경우는 主로 祭壇的 Dolmen 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또 근간에 方善柱 先生은 韓國의 巨石問題中 Dolmen 에 關하여 外國의 폭넓은 資料를 引用하면서 韓國 고인돌의 一部가 氏族共同納骨所일 경우도 있고 기타의 고인돌도 洗骨葬의 習慣과 結合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功勳祭宴과의 關係에 關心을 表하였다⁽²⁾.

이러한 見解들은 망서리던 筆者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現段階에서 이 以上 Dolmen 에 對하여는 言及을 不要로 하므로 甕棺의 意義에 對해서만 간략하게 종래의 說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現在에 翁觀에 知識은 相異한 두개 또는 그 以上の 항아리를 合口한 속에다 사람의 시체를 넣어 매장하였다는 생각이었다. 이 해석은 매우 妥當 할 수 있다. 그러면 甕棺의 原初意義는 屍體를 넣은 棺으로만 使用했을까. 위에서 본 Dolmen 의 意義속에 하나를 차지하는 墳墓的 Dolmen 만도 두가지 해석을 동반한다. 卽 시체를 直接묻었거나 洗骨 혹은 藏骨의 意義로 보는것이 그것이 다. 많은 外國人들은 藏骨 혹은 洗骨의 意義를 重視하며 古文獻에서도 有力한 記事를 發見하고

(1) 凌純聲 臺灣與東亞及西南太平洋의 石棚文化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專刊之十 1968. P.125

(2) 方善柱 韓國巨石制의 諸問題 史學研究 第20號 (金良善 教授 華甲記念史學論叢) 1968. P.83

있다. 韓國의 甕棺에서 이러한 原初 意義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 本論의 의도이지만 筆者가 아
는한 이미 凌教授는 東沃沮를 中國大陸의 洗骨葬의 地域에다 포함시킨바 있었다⁽³⁾.

이제 筆者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가지 점을 分明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인접 大陸이나 他國의 實例와 비교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들간의 文化的 關聯을 主張할 意圖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좁은 테두리 안에서 研究한 나머지 주위에서 나타나는 事實에 無條件 輕視
내지는 배타적인 態度를 갖고 싶지 않다는 點, 둘째, 文化的 獨創性을 云謂할 때 이미 그 獨創性은
인접 주위 國家의 文化와 充分한 檢討 後에 내려진 結論으로 유니크한 性格을 띤 存在여야 하며 만
일 그러하지 못할 때는 文化的 傳播를 일단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內容은 韓國
史研究會 月例發表會에서 밝힌바 있다.

二. 從來의 見解

韓國에서 甕棺의 發見例은 그다지 많지 않고 더구나 정식 발굴에 의거한 例는 손으로 헤아릴 程
度밖에 안되지만 그중에서 서울 大學校에서 발굴한 新昌里유적은 규모로 보나 遺物量으로 보아 學
界에 던진 큰 成果로 보아야 하겠다. 지금까지 알려진 몇 例를 보면 羅州郡 潘南面⁽⁴⁾, 東萊⁽⁵⁾, 金
海⁽⁶⁾, 靈岩⁽⁷⁾, 安東⁽⁸⁾, 光山⁽⁹⁾, 月城⁽¹⁰⁾과 北서에 平壤⁽¹¹⁾ 台城里⁽¹²⁾ 등이 보고 되어 있다. 이와같이
몇 例에 不過한 遺物과 遺蹟에 對해서 一部는 略報告로 一部는 正式 報告書가 나와 있고 간략하게
나마 甕棺에 對하여 說明을 하여 놓았으므로 이제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羅州 潘南面의 古墳은
1917년에 日人 谷井濟一氏가 德山里 4號, 新村里 9號墳을 발굴하고 이를 略報告로 大正 六年度 古
蹟調查報告書에 다음과 같이 報告하고 있다.

「潘南面の 紫徽山주위 新村里 德山里 및 大安里의 臺地위에 數十基의 古墳이 散在한다. 이들 古
墳의 外形은 圓形 또는 方臺形이며 封土內에는 一個 또는 數個의 陶製 甕棺이 들어 있다. 지금 調
査의 結果를 概說하면 最初地盤上에 흙을 돋우고 그 위에 陶製大甕을 놓은 다음 盛裝한 死體를 요
사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처럼 枕으로 감고 그것을 板子위에 넣어 頭部부터 大甕內에 집어 넣되 大
甕에서 앞은 또는 口部를 깨트려 적게 만든 小冪으로서 그 板子를 받치고 지금 작은 항아리를 大甕
안에 插入하여 屍體의 足部를 덮고 大小의 항아리가 습한 곳에는 진흙을 넣은 冪을 安置하고 封土
를 씌운다. 發見된 遺物中에는 金銅冠 金銅履 大刀 刀子 斧 槍箭 鋸 耳飾 句玉 切子玉 小玉으로 일

(3) 凌純聲 東南亞의 洗骨葬及其環太平洋的分佈 中國民族學報 第一期(崔茂藏 臺灣의 埋葬習慣에서 再引用) P.62

(4) 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

(5) 靑丘學叢 第2號 P.180~181. 彙報

(6) 樞本龜次郎 金海會峴里貝塚發見의 甕棺に就いて 考古學第九卷 第一號 P.40~45

(7) 金元龍 鬱陵島 附靈岩郡內洞里甕棺墓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四冊, 慶熙大學校에서도 1968년 9월에 발
굴한바 있다.

(8) 梨大에서 발굴하였으나 正式報告書는 나오지 않았다.

(9) 金元龍 新昌里甕棺墓地 1964

(10) 文化財管理局에서 發掘調查하고 있음. (1969. 2)

(11) 昭和六年度古蹟調查概報

(12) 李進熙 戰後의 朝鮮考古學의 發展—初期金屬文化期 —考古學雜誌 第四十五卷 第一號 PP.51~52.

일이 枚擧 할 수 없을 程度이다」⁽¹³⁾

이와같이 記述한 다음 葬法과 關係 유물로 보아 아마도 倭人の 것일 것으로 보고 他日에 「羅州潘南面에 있어서의 倭人の 遺蹟」이란 제목으로 特別報告書를 提出하겠다고 言及하면서 連日 계속되는 降雪때문에 調査를 行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며 調査를 中止한다고 끝맺고 있다. 여기서 注目할 點은 시체를 천으로 감고 板子위에 얹어서 瓮속에 넣으며 大甕의 口部에 있어서 얇은 口部를 깨트려 甕으로 板子和 시체를 받친다는 해석이다. 以上과 같은 紙面 한 페이지의 略報와 寫眞七枚만으로는 어떻게 谷井氏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하였는지 筆者로서는 알 수 없다. 반출 유물에서 人骨과 시체를 감았던 천과 板子에 對해 그以上 言及이 없는 것을 보면 谷井氏의 이 見解는 自身の 主觀의 서술의 관점에 따라 記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여기에 사용된 甕은 두개를 合口한 甕棺임을 알 수 있다.

그후 이곳의 發掘은 1938년에 有光敎一 澤俊一氏에 依해 계속되었고 新村里 6, 7號, 德山里 2, 3, 5, 號가 主體로 되었다. 新村里 6號墳에서 完全한 甕棺이 두개 나왔을뿐 其他는 파괴되거나 또는 도굴을 당하여 큰 成果를 거두지는 못 하였다. 따라서 有光敎一敎授는 발굴보고서에서 古墳群의 특징을 谷井氏가 大正六年度調査報告書에서 서술한 內容을 그대로 引用하여 解答을 찾고 있어 第2回 발굴에서 얻은 內容은 前回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발굴에서 有光敎授가 言及하였듯이 지금까지 唯一한 單甕을 발굴한 것이 特異한 점으로 등장하였다. 合口한 甕관이 아닌 單甕이므로 口緣部는 평전한 두경을 대고 바른 것이라는⁽¹⁴⁾ 해석은 매우 興味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甕관은 合口한 甕관과 單甕의 두가지 形態가 있음을 알게 된다.

藤田敎授도 赭色의 大甕에 屍體를 넣고 合口한 후 橫으로 地中에 묻은 葬法이라고⁽¹⁵⁾ 말하여 前述한 見解와 같은 意見을 表明하였다.

金元龍敎授는 1960년에 靈岩郡 內洞里에서 甕관을 발굴하고 이에 對한 概要를 「鬱陵島」報告書의 附錄으로 發表하였다. 이곳의 발굴중 매우 이채로운 것은 보통은 두개를 合口하는 甕관이 보통이고 單甕의 例가 있지만 5號棺처럼 3개의 항아리를 연결한 三甕合棺이 出土된 事實이다. 이를 金元龍敎授는 各甕의 크기에 따라 西쪽부터 東쪽으로 大中小의 順序로 하여 西甕 中甕 東甕으로 命名하고 다음과 같이 자세한 說明을 하였다.

「五號棺의 內部는 東甕부터 調査하였는데 앞에서 잠깐 言及한 것처럼 第一작은 東甕은 內部에 부드러운 細土가 甕內部에 空間없이 充漫되어 있었고 아무 遺物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甕內部바닥(원래의 甕底가 아니라 水平으로 놓여 있을 때의)에는 最深五糎 程度의 두께로 黑褐色의 굳어진 진흙이 있었다. 이 진흙은 中甕바닥에도 있었고 東甕에도 있었는데 모두 바닥에만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있고 三者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屍體 其他 有機質의 석은것이 甕棺이기 때문에 地下로 스며들어 없어지지 못하고 흙과 섞여 凝固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운데에 있는 中甕에서도 內部에 빈틈없이 細土가 充滿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 진흙이 있었는데 다른 遺物은 一切 없으나 東甕쪽을 向한 口部 가까이 中心部에서 若干 南偏해서 小形 長頸圓

(13)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P.663

(14)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書 P.24

(15) 靑丘學叢 第二號 彙報(東來의 甕棺) P.181

底坩 一개가 西쪽으로 입을 두고 横倒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坩 주위에도 그 黑褐色 沈澱土層이 있었지만 坩의 바닥이 그 沈澱層 위에 있지 않고 甕棺壁에 直接닿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沈澱은 上記한 바와 같이 元來부터 바닥에 깔린 것이 아니고 後天的으로 고이게 된 것임을 더욱 確實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小坩은 副葬品으로서가 아니라 屍體를 얹은 七星板같은 것을 고여 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推測되며 그러한 例가 이미 羅州에서 報告되고 있다.

最大甕인 西甕에도 内部에 細土가 充滿되어 있었으나 그 上面이 器腹에서 10櫃의 空間을 이루고 있으며 그 面이 中甕의 細土와 連結되는 것으로 보아 이 大甕内部의 細土는 中 東甕 (모두 破損)으로 스며드는 浸水가 옆으로 흘러 들어 오면서 細土를 浸澱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西甕과 中甕의 接口部는 그 안쪽 바닥에 兩甕에 걸쳐 幅 30~40櫃로 沈澱이 발라져 있었으며 地下水의 浸透를 防止하기 위해 内外로 努力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内部 調査에 있어서 東 中 두甕은 元來 破損되어 있기 때문에 破片을 들어내고 위로부터 内部細土를 除去하였으나 西甕은 위에 金금이 하나 가기는 하였으나 깨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不得已 口部로부터 어느 程度 흙을 긁어내고 上半身을 그속에 넣고 나머지 細土를 水平으로 긁어 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細土層 上部에는 아무 遺物이 없었고 아래로 내려 오면서 黑褐色 粘土層 가까이 와서 甕身部 거의 中央部에서 人骨의 殘滓라고 생각되는 白粉이 部分的으로 認知되었다. 그리고 甕의 正中線 甕의 元來 底部로부터 60櫃 程度 떨어진 位置의 黑褐色 粘土層에서 보는 바와 같은 小琉璃玉들이 물려서 나왔는데 原形은 分明치 않다.

이렇듯 第一 큰 棺甕인 西甕속에는 틀림없이 사람이 들어 있고 또 玉類의 位置로 보아 머리를 西쪽에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人骨痕跡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西甕에서만 나왔지만 그렇다고 被葬人의 西甕만으로 充分할 程度로 작은 身長이었는데 換言하면 身長 90櫃 未滿의 小兒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1—4號棺은 모두 單甕이며 單甕으로서 充分할 때는 甕 또 하나의 甕을 쓰지 않고 平蓋나 木板같은 것으로 막았던 모양인데 여기서는 西甕以外에 두 개나 더 連結하고 있으며 마지막 小甕은 또 몰라도 中甕까지는 身體가 들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七星板을 고여 놓았다고 생각되는 小坩이 中甕에서 나온 事實이라던가. 西甕과 中甕사이의 連結部 바닥을 沈澱으로 발라 놓은 事實등은 그러한 推測을 더욱 可能하게 하고 있다. 나는 有機質이 섞여 말라 붙은 것 같은 前記 黑褐色 粘土層이 마지막 小甕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被葬人의 足部가 여기까지 뻗어 있었다고 보고 싶다. 三甕의 全長이 1.8米로 되어 있으니 여기서 頭部 足部に 있을 空間을 除外하면 被葬人의 身長은 1.4米가 될까 말까 할것이다. 이것은 成人으로써 매우 작은 편이다.」¹⁶⁾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金元龍 教授도 1917年度 潘南面의 발굴자인 谷井氏의 見解와 거의 같은 說을 내고 있다. 卽 七星板위에 시체가 없어서 三甕속에 넣어졌고 中甕에 있는 長頸圓底坩이 이를 받친 것으로 해석하고 第一작은 東甕이 足部를 씌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記述은 谷井氏의 報告보다 매우 자세하여 甕의 밑부분에서 例컨대 黑褐色의 沈澱이 나왔다는 說明같은 것은 곧바로 시체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事實上 그와 같은 可能性이 充分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아울러 單甕이 出土된 것은 前述한 昭和 13年度 古蹟調査報告書에서 이미 나타난 例에

(16) 金元龍 鬱陵島 附 靈岩內洞里甕棺墓 1963. PP.96~98.

비추어 亦是 재미있는 現象이라고 하겠다.

1963년에 서울大學校에서 발굴한 光山郡 飛鵝面 新昌里 瓮棺은 53개 가운데 1개가 單甕, 1개가 三甕인 外에 모두 二甕合口로 된 甕棺이다. 이 규모는 지금까지 발굴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수확이다. 이 報告書는

「그러나 이 甕棺들은 洗骨葬이나 火葬과 關聯된 骨壺같은 性格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다. 왜냐하면 萬一 遺骨만을 추려서 넣은 骨壺라고 하면 항아리의 크기가 大體的으로 統一될 것이며 부디 大小 各樣의 항아리를, 그것도 두개 세개를 맞붙여서 使用할 理가 없다. 遺骨뿐이라면 조그만 항아리에 넣어서 뚜껑이나 덮어 묻으면 되지 부디 方向을 定하고 伸展臥한 것처럼 머리를 약간 높이고 水平으로 埋葬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理由로써 이 甕棺들은 洗骨葬이나 火葬과 關聯된 것이 아니고 屍體를 그대로 格納한 棺이라고 보는 바이다. 이 境遇 그것들이 或是 成人을 屈葬한 것이 아닐까 하는 疑問도 생길지 모르나 棺의 크기나 特히 口徑, 腹徑이 작아 成人을 屈葬한 것은 絶對로 不可能하다⁽¹⁷⁾.

라고 특히 洗骨葬 火葬 屈葬등을 言及하였으나 결국 종래의 見解를 再確認, 다음과 같이 結論을 맺고 있다.

「新昌里甕棺墓地는 典型的인 無文土器文化의 傳統위에 서는 榮山江 下流地方의 土着農耕人들이 早死한 幼小兒들을 위해서 建設한 것이며 그 시기는 初期鐵器時代의 始初期로서 實年代로 말하면 西曆紀元前後의 約 1.2 百年間에 該當된다고 推測된다. 그들은 樂浪郡設置 前後부터 西海岸을 타고 내려오는 銅劍 鐵器文化의 洗禮를 받고 그와함께 中國墓制의 하나인 甕棺葬을 알게 되었으나 甕棺의 形態自體는 外來의 것이 아니고 在來式土器를 擴大해서 使用했던 것이다. 그들은 成人을 爲해서는 支石墓나 石槨墓를 쓰면서 病死한 幼小兒를 위해서는 日常쓰고 있던 조그만 항아리에 거의 알몸으로 넣어서 共同墓地에 1m程度의 땅을 파고 東枕 水平으로 埋葬하였던 것이다.」⁽¹⁸⁾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甕棺의 原初 意義는 直接 屍體를 棺위에 또는 그대로 瓮棺에 넣어 合口하거나, 單甕인 경우에는 평원한 棺등으로 막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通用되고 있다. 여기서 筆者는 시체를 甕속에 넣었다는 葬法에 처음부터 反對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이는 오히려 第一次의으로 合理的인 해석이며 當時人들의 精神生活을 알 수 없는限 妥當한 서술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다만 한가지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은 谷井氏가 甕棺에 對해서 說明한 部分이 現場을 描寫하듯 너무나 실감있고, 順序가 짜여있게 시체를 瓮속에 넣는 과정이 나타나 있음에도, 筆者가 다소 疑問을 갖게하는 면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으나, 적어도 그 報告書의 內容만으로는 시체를 板위에 얹어 頭部부터 瓮속에 넣었다는 그리고 屍體와 板子의 무게를 中間에서 받치는 것이 小坩이라는 해석은 于先 谷井氏 自身의 主觀의 解釋일 可能性도 있다는 點이고 또 客觀의으로도 그러한 관찰이 수긍이 가는 點이라는 事實이다. 바로 이 수긍이 간다는 見解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甕棺의 해석을 위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관해서 시체를 瓮속에 넣은 葬法이었다고 간주해온 것이다.

(17) 金元龍 新昌里甕棺墓地 1964. P.47

(18) 前掲書 P.54

三. 洗骨葬의 意義

위에서는 주로 지금까지 甕棺에 對한 몇몇 學者의 見解를 살펴보았거니와 그런가운데서도 어딘가 다른 角度에서 甕棺의 原初 意義를 考察 할 수 없을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솔직히 말해서 筆者의 意中에는 아직도 남아있다.

한예로 韓國에서 發掘된 甕棺의 크기는 各樣이며 新昌里 遺物에서 보듯 最大가 52號棺의 130cm 로 부터 最小가 26號棺의 49cm 에 이르기 까지 여러층이고 어떤 것은 시체를 넣기에 매우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것도 있다. 이 유적에서 出土된 遺物가운데서 全長을 알 수 있는 28例中 40cm 대가 1개, 50cm 대가 3개, 60cm 대가 10개, 70cm 대가 5개, 80cm 대가 3개, 90cm 대가 2개, 100cm 대가 2개, 130cm 대가 2개로 나와있다⁽¹⁹⁾. 이 수치는 매우 작은 甕棺임을 보여주고 있다. 靈岩의 例에서 볼 때 三甕을 合口한 5號棺 全長의 길이는 180cm 이나 金元龍 教授가 지적하듯 실제 매장된 사람의 身長은 140cm 밖에 안되며 成人으로는 매우 작은 키인 것이다⁽²⁰⁾. 또 1號棺도 全長이 158cm 이나 130cm 程度의 사람으로 보면 少年이 아니라고 할 때 키가 작은 老人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²¹⁾. 그 외에 2號 3號棺도 各各 80cm, 95cm 로 亦是 작은 수치이다. 梨花女子 大學校에서 發掘한 安東의 甕棺도 75cm 로 알려지고 있고 京釜間 高速道路 工事中 나타난 유물을 발굴중인 文化財管理局은 月城郡 서면 두암산에서 약 84cm 의 甕棺을 발굴하였다. (東亞日報 2, 25, 1969) 金海의 例에서도 1號棺의 內甕의 高가 약 64cm, 外甕이 80cm 이며, 3號棺도 內甕이 약 55cm 外棺이 약 59cm 이다⁽²²⁾. 이들 內外甕을 합쳐 실제 매장인의 身長을 생각한다면 물론 작은 사람의 키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에 金元龍 教授는 成人의 伸展葬으로는 不充分하나 口徑 腹徑으로 미루어 成人의 屈葬일 可能性을⁽²³⁾ 言及하기에 이른것 같다. 따라서 대체로 어린이 用의 甕棺이거나 屈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키가 작다는 단서를 붙여야만 甕棺의 설명이 순조로운 것은 그 理由를 어디서 찾아야 할것인가. 어린이나 키가 작은 사람만 甕棺을 使用했다는 것도 不合理한 것 같고 老人이나 婦人만의 用이라는 것도 副葬品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을것 같다. 谷井氏의 설명에 다소 의문점이 있음은 위에서 지적한바 있다. 勿論 甕棺의 大小만으로 問題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甕棺의 原初 意義를 屍體를 甕속에 直接 넣었다는 생각에서 잠시 떠나 洗骨葬의 觀點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臺灣의 凌純聲教授가 「東南亞의 洗骨葬及其環太平洋的分佈」란 論文에서 中國大陸 洗骨葬의 分布圈에다 東沃沮를 넣고 있음은 上述한 바이지만 韓國의 墓制에다 洗骨葬의 意義를 몇 글자로나마 提起한 最初의 言及이라고 보겠다. 洗骨葬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시체에서 살(肉)이 부패한 뒤에 뼈만 추려서 장사지내는 方法이다. 皮肉을 제거하기 위한 方法에도 勿論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臺灣에서 修學한 崔茂藏學兄이 준 그의 論文에 依據 臺灣의 洗骨葬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 前掲書 P.31

(20) 鬱陵島 P.98

(21) 前掲書 P.92

(22) 榎本龜次郎 金海會峴里貝塚發見の甕棺に就て 考古學9—1 PP 41~42.

(23) 新昌里甕棺墓地 P.50

「臺灣人は慣習上 사람이 죽으면 土葬을 하고 적당한 時期가 지난후 遷葬을 하는 바 가령 죽은 사람의 年齡이 30歲 미만이면 5年이 지난후에, 40歲 전후는 6年을, 50歲 以上은 7年 내지 12年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서 棺을 열고 洗骨을 하게 되며 未成年者는 洗骨을 하지 않는다.」⁽²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심스럽게 各部分의 骨을 모아 高 약 85cm, 徑 35cm의 甕관에 넣는바 마치 우리가 쪼그리고 앉아 양손을 턱에 고이는 듯한 形態, 即 屈葬 형식이 된다. 그리고 木炭등으로 棺의 空間을 메우는데 이는 遺骨의 動요를 막고 습기를 방지 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한다. 甕은 하나가 使用되며 뚜껑을 덮어 매장하는 것이다. 매우 興味있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韓國의 경우에도 이 洗骨葬의 記事가 나오는 것이다. 三國志 東夷傳 東沃沮條에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 舉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瓦甕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

이라고 洗骨葬과 關聯되는 資料를 실고 있다. 後漢書 東夷傳 東沃沮條에는 이보다 더 簡略하나 內容은 비슷하게 記述되어 있다⁽²⁵⁾. 바로 위와같은 內容때문에 凌教授가 東沃沮를 中國의 洗骨葬의 分布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洗骨葬의 地理的 分布를 湘 黔 川 康 滇 桂 粵 閩 臺 蘇 吉等 11 個省과 東北 沿海 一隅의 東沃沮까지로 보고 洗骨前의 屍葬에는 土葬 火葬 平臺葬 室內葬등의 葬法을 들면서 이것이 東南亞와 太平洋 沿岸 洗骨葬과 연결됨을 報告하고 있다⁽²⁶⁾. 이 以上 言及이 없으므로 筆者는 東沃沮 條를 檢討하면서 몇가지 點을 살피보기로 하겠다.

우선 「皆假埋之」나 「皮肉盡」이니 또 「乃取骨置槨中 舉家皆一槨」이라는 말에서 假埋葬한 후 皮肉이 다 썩어 없어진 뒤에는 骨을 取해서 槨가운데 안치하는데 온가족이 一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內容은 分明히 韓國에도 洗骨의 風習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好資料인 것이다. 아울러 이 取骨한 것은 甕棺에 넣어졌을 것이며 이 甕棺들이 하나의 家族墓로써 一槨을 形成했다고 본다면 지나친 억설일까. 大正六年度 古蹟調查報告書에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封土內에 一個 또는 數個의 甕棺이 들어 있었는바 이것이 바로 一槨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 靈岩 內洞里 七號墳 遺跡에서 살펴본다면 七號墳이 6個의 甕棺과 土葬으로 構成되어 있고 金元龍教授는 이들의 關係를 家長과 부인, 아이들일 것이라고 본만큼⁽²⁷⁾ 이를 家族들이 共同으로 使用한 一槨으로 보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이와 같은 해석이 許諾된다면 甕棺은 일단 屍體를 매장한 후 얼마의 期間이 지난후 取骨해서 甕속에 넣어 장사지낸 洗骨葬으로 해석해도 一理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일단 추적해 볼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甕棺이 비교적 實際 身長에 比해서 작은 理由를, 그리고 어떤 甕棺은 아무리 少年의 屍體일 망정 直接넣으면 틀림없이 깨어질것이라는 不安感을 除去시켜주며 文獻上의 記錄과 주위 나라의 實例가 이를 證明하여 준다고 보겠다. 台灣의 墓앞에는 被葬者의 「寫眞이 붙는바 東沃沮條에 보이는 「刻木如生形」이 그러한 性格의 것으로 짐작은 가나 斷言을 할 수가 없다. 또 「又有瓦甕 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에서 瓦甕의 瓦는 甕관을 말 할 수도 있으나 文脈上

(24) 崔茂藏 臺灣의 埋葬習慣 1968. P.59

(25) 後漢書 東夷傳 (東沃沮)

其葬作木槨 長十餘丈 開一頭爲戶 新死者皆假埋之 令皮肉盡 乃取骨置槨中 家人皆共一槨...

(26) 臺灣의 埋葬習慣 PP.62~63

(27) 鬱陵島 P.95

副葬品인 土器를 말하는 것 같다.

禮記(卷二檀弓上)에

「有虞氏瓦棺 夏后氏塋周 殷人棺槨 周人牆置翬」

「周人 以殷人之棺槨葬長殤 以夏后氏塋周葬中殤下殤 以有虞氏之瓦棺葬無服之殤」

이라고 瓦棺이 보인다. 學者에 따라서는 이 瓦棺과 甕棺을 同類로 보기도 하고 성질은 같으나 약간 다른 것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原初 意義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진다. 文獻上으로도 甕棺에다 “瓦” 字를 使用하는 例가 있다. 그런데 瓦棺葬의 目的에 對해 發掘된 遺物과 文獻的인 例證을 들어 역시 人骨을 埋葬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見解가 있음은⁽²⁸⁾ 우리의 눈을 끄는 바이다.

太平御覽 東夷總論(卷七百八十 四夷部 東夷一 叙東夷)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記事를 실고 있다.

史采曰 天監五年 丹陽南山 得瓦物 高五尺 圍四尺 上銳下平 蓋如合焉 中得劍一 瓷具十數 時人莫識

여기서 우리는 瓦棺이 아닌 瓦物의 瓦가 合口된 甕棺임을 알게 된다. 또한 劍과 瓷具 十數를 얻었음을 알 수 있으며 當時人들이 이 遺物에 對해 전혀 몰랐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上述한바와 같이 瓦鏢은 甕棺과 함께 있는 土器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그속에 米가 들어 있다는 것은 葬法에 따른 그들의 風俗으로 볼 것이며 甕棺과 아울러 土器에 米가 있다는 句節을 筆者는 조심스럽게 보고자 한다. 이 問題는 뒤에서 간단히 더 言及하기로 하겠다. 三國志 東夷傳 夫餘條에도 「男女淫 婦人妒 皆殺之 尤槍妒 已殺 尸之國南山上 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 乃與之」라고 부인이 시기하면 죽인 후 山上에 묻었다가 腐爛한 후 女子집에서 요구하면 시체(屍)를 준다고 洗骨과 關聯되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洗骨葬의 記錄은 隋書 高句麗傳에 한층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 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 以送之……

앞에서 洗骨前의 매장 방법으로 土葬 火葬 樹葬 平台葬 室內葬 等の 方法을 言及하였거니와 여기 隋書 高句麗傳에서 보면 「死者殯於屋內」라고 室內에다 棺을 둔 葬法임을 알 수 있고 三年이 지난 후 吉日을 擇해 장사지낸다는 것으로 미루어 分明히 洗骨의 風習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년이 지났다면 皮肉은 부패했을 것이며 따라서 取骨해서 장사 지냈다는 해석이 될 것이다. 그 후에 甕棺을 使用했는지 Dolmen을 使用했는지는 여기서 斷言을 할 수 없지만 甕棺과 돌멘의 時間的 性格을 考慮할 때 비교적 後期까지 甕棺이 存在했다는 事實에서 이와 關聯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方法이 火葬과는 상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에 骨壺와는 性格이 판이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가끔 듣는 草葬도 洗骨과 關聯이 있음은 물론이며 그 유풍으로 볼 것이다.

靈岩內洞里 7號墳에서는 6個의 甕棺과 이와는 색다른 土葬이 있는데 이 土葬에 對해서 金元龍 教授가 상세한 說明을 加했으므로 필자로서는 蛇足의 염려가 우려되거니와 만약 拙見이 허락된다면 다음과 같이 첨가해 볼까 한다. 이 土葬은 6號棺의 西쪽에 南北線에서 20度 偏西한 方向을 長軸으로 한 墓葬의 바닥으로 이 槨底는 5號나 6號棺의 바닥보다 약150cm 高位置에 있고 5cm 두께의 粘土와 木炭粉이 섞인 층으로 덮여 있는데 이에 關해 金元龍 教授는 「처음 言及한 鐵片이 무엇이었는데

(28) 戰國時代의 墓葬形制 考古通訊 1957~4. P.100

지를 確實히 알 수 없으나 鐵釘形이고 本質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頭部단이라도 보호하기 爲한 木槨設備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²⁹⁾고 조심스런 見解를 피력하였다. 事實 同一 封土內에 6個의 甕棺과 土葬의 흔적이 共存한다는 것은 해석이 매우 곤란한 것이다. 勿論 金元龍 教授가 지적하듯 時間的 차이를 가진 다른 葬法으로 百濟時代 末期쯤에 와서 이러한 土墓가 從來의 甕棺制와 交替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 위에서처럼 洗骨葬의 意義로 甕棺을 한번 생각해 볼때 여기의 土葬이 假埋葬 단계의 것이라던가 또는 어떤 事情에 依해서 洗骨을 하지 못한채 방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회박한 가능성이지만, 例컨대 琉球에서는 甕棺과 棺木이 共存하고 있다. 即 琉球에서는 墓앞에 棺이 出入할만한 小口가 있고 石板으로 문을 만들고 진흙과 재로 봉해 버린다. 內部는 앞에 棺이 놓일 자리가 있고 묘의 深處에는 低壇이 있는바 그위에 大小 陶甕이 놓이는 것이다. 앞에 있는 木棺의 위치도 新棺이 들어오지 않는한 移動하지 않으며 棺에는 물론 骸骨이 있는데 新棺이 들어오면 骸骨은 洗骨되어 陶甕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³⁰⁾. 靈岩內洞里的 7號墳에 있는 甕棺과 土葬이 或 이러한 例와 어떠한지 速斷할 수는 없으나 參考해 볼만한 것이다.

以上에서 간략하나마 甕棺이 갖는 骨葬의 意義를 보았으므로 이 甕棺의 起源과 分布에 關해 單面的인 몇가지 점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列子 湯問篇에는 楚나라의 주위 風俗에 關한 記事속에

楚之東有炎人之國 其親戚死 朽其肉而棄之 然後埋其骨 迺成爲孝子

라고 洗骨과 關連된 記錄이 나온다. 따라서 凌純聲 教授는 이를 中國文獻에 나타난 가장 오랜 記錄으로 생각하여 洗骨葬의 起源地를 長江 中류의 洞庭湖 地區라고 보고 있다⁽³¹⁾. 이 地域은 습하여 埋骨하면 쉽게 消失하기 때문에 시체도 너무나 高閣 또는 室內에 두었다가 시체가 썩으면 뼈만 간추려 집이나 幽岩에다 갖춘다는 것이다. 唐宋時代에도 湖南地區에는 高閣葬 洗骨葬 火化洗骨葬 幽岩藏骨葬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東南亞文化의 특징이고 멀리는 太平洋 一帶도 포함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琉球의 洗骨葬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더 나가서 海洋洲와 南美洲까지 이 洗骨葬은 分布하고 있다. 例컨대 南美洲 Amazon 江 河口左岸 Tupi 族의 Oyampi 와 Palikrem 人 및 Arawak 族의 Goajiro 人들은 시체를 묻은지 一年後에 取骨해서 甕棺內에 넣으며 Araquaya 상류의 Bororo 人도 土葬後 二週가 지난후에 洗骨을 하고, Karipuna 人도 戰士의 시체를 洗骨後 大甕에 넣고 집에서 一年을 지낸 후에 重葬하고 있다. 이 외에도 他例가 있으나 紙面 關係로 생각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洗骨葬의 分布는 매우 넓으며, 韓國에도 이와같은 甕棺이 洗骨葬의 意義를 띄었다고 해서 이상할것은 조금도 없다고 느껴진다.

한가지 덧붙일 問題는 臺灣의 洗骨葬에서 未成年者는 洗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韓國에서 發見된 多量의 작은 甕棺이 위와같은 例에 비추어 볼 때 直接 시체를 넣었을 가능성은 다른 어느 甕棺보다 특히 농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中에도 甕棺에 해당하는 크기의 어린이가 직접 들어 갔을 경우 깨어지거나 甕棺의 口徑으로 도저히 不可能한 事實도 있음을 銘記할 必要가 있다. 凌教授에 의하면 西伯利亞의 東南쪽에 있는 Yukaghir Gilyak 等은 近代에도 甕棺이 存在

(29) 鬱陵島 P.99

(30) 臺灣의 埋葬習慣 P.65

(31) 前掲書 P.69 이런 見解는 日本學者도 一部 갖고 있었다. (東洋考古學 P. 546)

하는바 最初에는 藏骨用으로 使用하였다가 後에는 葬屍用으로 쓴다고 한다⁽³²⁾. 韓國의 甕棺도 質軟의 土器와는 달리 예컨대 철선 三國時代로 들어와서는 土器의 製作技術에 따라 巨大한 陶質의 甕棺이 나오는데 이러한 容器는 시체를 直接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慶熙大에서 발굴한 3m 以上이나 되는 甕棺이 좋은 例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韓國의 甕棺도 처음에는 洗骨의 意義를 지니다가 巨大한 그릇을 만들만한 時期에 들어와서는 屍體를 直接 넣었을까? 또는 큰 甕棺도 그대로 洗骨藏用으로 사용하였을까? 역시 決定的인 證據를 내세울 더 많은 資料를 기다릴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東北 아시아의 例는 우리와 連接된 位置에 있고 文化의 전파 特루 관계상 역시 무시할 수 없어 한번 檢討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夫餘나 高句麗의 洗骨記錄이 더한층 윤곽을 부각시킨다고 보겠다.

太平御覽에서 본 天監五年(梁武帝 A.D. 506年)에 發見된 甕棺은 時間的인 面에서 볼때 매우 오랜 記錄으로 볼수 있는데 當時人들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于先 文獻的인 초보적 解釋上 中國에서는 이미 甕棺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 퍼져나간 後일 것임을 足히 짐작케 한다. 따라서 隋書 高句麗傳에 보이는 洗骨葬의 記事가 어느 程度 수궁이 가는 것이다.

太平御覽 東夷條에는 瓦物에 關한 史料에 잇대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沈約云 此東夷器盂 葬則 用之代棺 此制度卑小則隨之 當時東夷死則坐葬之 武帝服其博識

우리는 여기서 甕棺이 日常사용하는 그릇이며, 장사지낼때는 棺 代用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甕棺은 「此東夷器盂」라는 것으로 미루어 中國의 東北方과 韓國에는 상당히 이 葬法이 盛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비록 이 記事만이 아니라도 이미 위에서 살펴본 魏志 東夷傳 夫餘條와 東沃沮條의 史料나 隋書 高句麗傳의 史料가 단적으로 이런 內容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더우기 「當時東夷 死則 坐葬之」라는 句節은 甕棺을 해석하는데 매우 적합한 해석이나 地域的인 考慮와 文化의 差異를 감안 할 때 韓國과 얼마의 깊이까지 聯關을 맺어야 할것인가에 關해 現在로서 筆者는 斷言할 수가 없다. 臺灣에서 行하는 洗骨後의 葬法이 쪼그린 形態라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 우리도 洗骨後에 屈葬을 했는지, 그래서 위와같은 表現이 등장하였고, 깨어질것 같은 약한 甕棺의 의문점이 여기서 解明을 얻을지는 더 많은 資料와 研究를 必要로 한다. 그러나 그 可能性을 全혀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

韓國의 甕棺墓制의 源流에 關해서 金元龍 教授는 新昌里報告書에서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中國本土에서는 新石器時代에 이미 小兒甕棺墓地가 發生하고 있으며 또 南滿洲 遼陽三道壕에서 發見된 小兒甕棺墓大群은 總數 348個나 되는 것이고 그 中에서는 幼兒의 齒牙頭 肢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年代는 漢 初期부터 王莽代까지 即 漢代의 것으로 報告되어 있다. 한편 樂浪地區에서는 後漢代에 屬하는 塼築墳羨道에 陪葬된 小兒 甕棺이 發見되었고 解放後 北韓에서도 甕棺의 發見이 報告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南韓甕棺의 由來하는 바가 스스로 밝혀진 感이 있으며 여기서 다시 바다를 건너 日本에 들어가 같은 甕棺墓地를 出現케하고 있는 것이라고 推測된다」⁽³³⁾.

이 見解에 依하면 甕棺은 中國에서 南滿洲를 통해 韓國에 流入된 것으로 되어 있다. 筆者는 이러한 難問題에 까지 깊숙히 關여할 位置에 있지 못하므로 더 자세한 줄기를 찾을 수는 없겠다. 後代의

(32) 前揭書 P.68

(33) 新昌里甕棺墓地 P.53

概念으로서의 東夷地域에 甕棺이 盛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지만, 그 외에도 예를 들면 禮記에서 본 有虞氏 互棺 같은 旬節도 孟子(卷之八)離婁下에서는 舜을 東夷之人으로 본만큼 좌우간 甕棺이 東夷地域에는 널리 퍼졌던 모양이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起源地와 번성한 地域이 同一해야 된다는 어느 原則도 없고 보면 위에서 累說한대로 洗骨葬의 中心이 楊子江 流域의 洞庭湖區 라는 데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凌教授가 Dolmen의 起源地를 地中海에 두고 그 전과 루-트를 西洋學者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東쪽으로 이동한 흐름을 두 계통으로 보았다. 즉 南쪽으로는 루트를 바다를 통해 東南아시아로 왔고 北쪽은 陸路로 中央아시아를 통해 極東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³⁴⁾. 이 見解가 옳은지는 갑자기 찬의를 말할 수 없지만 一理있는 說이라고 생각된다. 甕棺도 그러면 두 계통으로 韓半島에 들어왔는가. 洗骨葬의 起源地가 楊子江 流域이라 해도 韓國으로의 流入經路가 어느 쪽이였는가는 시원스럽게 言及 할 수가 없다. 이제 東沃沮條의 說明시 뒤로 미루어 놓았던 甕棺과 土器속에 담겨있던 米의 問題를 생각해 보므로서 小論을 끝일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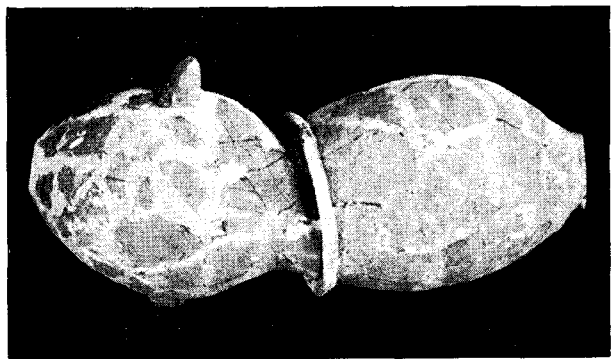
일찍기 筆者는 別稿에서 米의 韓半島起源地를 南方으로의 傳來가 可能하며 尙當하다고 본 바 있다⁽³⁵⁾. 甕棺을 洗骨葬의 意義로 보고, 이 起源地가 楊子江 流域이라는 說과 아울러 米의 半島流入이 南方으로 傳來가 可能하다는것, 그리고 魏志 東夷傳 東沃沮條에 보이는 甕棺과 쌀에 관한 記事를 綜合해서 考究해 볼때 무엇이든 合理的인 可能性이 비치는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더 훌륭한 資料와 참신한 說을 기다리기로 하겠다⁽³⁶⁾.

四. 餘 說

本 小論이 결코 體制를 갖춘 論文이라고 믿을 수 없기에 結論이란 語彙를 避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叙述한 內容을 간추린다면 普遍的으로 생각 해 온 韓國의 甕棺은 直接 屍體를 甕속에 넣었다는 解釋이었다. 이 說은 谷井氏가 羅州 甕棺을 發掘하면서 내 놓은 報告였고 現今까지 學界에 그와 같이 通用되어 온 것이다. 筆者도 이 說이 一面 매우 妥當하다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立場에서 이를 解明 해 볼 必要를 느끼었기에 洗骨葬의 意義를 試圖 해 본 것이다.

文獻에 나오는 몇 가지 史實은 確實히 韓國에도 洗骨葬의 存在를 立證하고 있으며, 일부 甕棺自體가 지니고 있는 모순된 점들, 換言하면 甕棺이 작다던가 또는 시체를 넣기에 부적당 하다든가, 그리고 시체를 넣을 경우 깨어질 可能性 등 여러點을 考察하여 文獻자료와 비교 檢討해본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부끄러운 점은 當時人들의 埋葬에 따르는 精神世界를 內的으로 描寫하지 못하고 安易한 서술 立場을 取했다는 자책감이다. 몇가지 外國의 例를 引用 對照한 目的과 動機에 對해서는 머릿말에서 言及을 한 바 있다. 지금도 이 글의 論調가 옳다고 主張할 意圖는 추호도 없다. 다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提議 程度이다. 아울러 이 內容은 언제나 否定될 수 있고 修定되길 바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餘說을 맺는 바이다.



高大博物館藏 甕棺

(34) 臺灣與東亞及西南太平洋的石棚文化 參照

(35) 拙稿 三韓位置에 對한 從來說과 文化性格의 檢討 史學研究 第20號

(36) Abstracts Symposia VIII International Congress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Science 1968.

최근 학계 동향을 살피는 데 도움을 받았다.